

# 합계출산율 0.97명...전남 아이 울음소리 가장 컸다

지난해 전남 합계출산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는 0.71명으로 전국 평균 0.72명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저출생과 사회변화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남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영광 1.65명, 강진 1.47명, 해남 1.35명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종(0.97명)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 연령대(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다.

지난해 광주의 합계출산율은 0.71명을 기록했고 서구 0.59명, 남구 0.69명으로 출산율이 낮았다.

또한 두 지역 모두 인구 1천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3명으로 전국 평균 4.5명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2013년 광주·전남 합계출산율은 1.17명·1.52명으로 10년 사이 각각 0.46명

(-39.31%)·0.55명(-36.18%) 줄었고 전국 평균도 1.19명에서 0.72명으로 39.49% 감소했다.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 속에 유소년 인구 비중도 크게 줄 것으로 예측됐다. 광주지역 유소년 인구는 2022년 12.6%

에서 2022년 8.7%로 줄어들고, 전남은 1.1%에서 6.3%로 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예정이다.

이 같은 이유로 광주 지역 전체 인구는 같은 기간 147만명에서 118만명으로 30만명 줄어들고 전남은 177만명에서 14

9만명으로 28만명 감소, 30년 뒤엔 광주 전남에서 58만명의 인구가 적어진다.

호남통계청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가 줄어드는 또 다른 이유로 사회적 인식을 꼽았다.

광주·전남 지역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지난 2012년 각각 61.0%·73.1%로 지난 2022년 57.1%·58.1%로 모두 감소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두 지역(광주·전남) 남성들은 결혼 자금 부족(40.3%·28.5%), 금전적 문제가 가장 컸고 그다

음으로는 각각 필요성(13.2%·16.6%)을 느끼지 못함이 뒤를 이었다.

여성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광주는 28.6%가 자금 부족 이유를, 전남은 25.5%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생각으로 광주·전남의 1인 가구 비중도 점차 늘고 있다. 광주지역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28.8%에서 7년 만인 2022년 35.5%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전남의 1인 가구 비중도 30.4%에서 36.1%로 상승했다.

안태호 기자

## ●호남지방통계청 '저출생과 사회변화 전망'

지난해 영광 1.65명 1위, 강진 1.47명 2위  
광주 0.71명으로 전국 평균 0.72명 밑돌아



파리 올림픽 공식 기념주화 공개 18일 서울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열린 '파리 2024 올림픽 공식 기념주화 실물 공개 행사'에서 모델들이 기념 주화를 선보이고 있다. 풍산화동양행이 판매를 개시한 실물 기념주화는 오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선착순 예약 접수로 판매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한전, '재난관리 우수기관' 6년 연속 선정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최초...재난대응 역량 등 전 지표 우수

한국전력공사는 18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6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부 재난관리평가'는 기관들의 재난관리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실시 중인 평가제도다. 33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역량을 종합 진단해 '우수·보통·미흡' 등급을 부여한다.

한전은 코로나19로 평가가 미시행된 '2021년(2020년 실적)을 제외하고 2018년(2017년 실적)부터 6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달성했으며, 이는 전력·가스·석유 등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중 최초의 사례다.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 부기관장 실무자의 재난대응 역량 ▲재난대비훈련 ▲업무연속성 유지노력 ▲실제 재난 대비 대응 추진 정책 등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

해 자체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통합 구축한 점, 호우, 태풍 등 재난위험 예지 시스템을 구축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재난관리평가 6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의 영예는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 불확실성이 가속화되고 방대한 규모의 설비 운영에 따른 재난 노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전력공급 의무 완수를 위해 임직원들이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재난대응 체계를 위해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재민 기자

## 산인공 전남서부지사 '인구소멸 대비 인적경쟁력 강화' 세미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는 18일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전남 서부권 지역의 인구소멸에 대비한 중소기업의 인적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전남서부권 HR(인적자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진철 한국경영학회 교수와 이정관 전남테크노파크 본부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지역내 중추적인 기업훈련을 이끌고 있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훈련 4개 기관이 참여해 전남 인구소멸 위기와 기업직업 훈련관점에서의 중소기업

미래전략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전남 22개 시군 중 20곳이 인구소멸 지역으로 도심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 특별법 개정, 국가 출생수당과 외국인력 광역비자 도입 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산인공 전남서부지사에서는 전남서부권 HR+세미나를 통해 인구감소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미래 지속가능한 HRD(공인 기업직업훈련) 인재육성 방향을 제시 하고 참여기업과 현장소통으로 현장

제감가능한 정부지원의 기업직업훈련 사업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태훈 산인공 전남서부지사장은 "전남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단순히 인구감소 문제가 아니라 지역내 일자리, 중소기업 성장에 있어서 지역 역량을 모아 적극 대응할 문제이다"며 "일할 사람이 없다는 중소기업을 누구나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는 K-HRD로 기업인재 육성지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안태호 기자

## 라정시내버스 '착한운전달성 운동' 포상

사고 예방·서비스 증대...상반기 3개조 51명 선정

광주시를 운행 중인 (유)라정시내버스는 18일 "2024년 상반기 '일일일 착한 운전달성' 캠페인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3개 조를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일일일 착한운전달성'은 111일의 캠페인 기간 동안 사고 발생, 법규위반, 민원발생 여부와 더불어 수입금 증대 등을 평가해 성적이 우수한 운전원에게 포상하는 행사로서 개인별이 아닌 조별 평가를 시행한다.

'일일일착한운전달성' 캠페인은 사고 예방 및 서비스증대 일환으로서 라정시내버스가 진행해 오는 행사로 이번 포상은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3개조 51명에게 포상금이 수여됐다.

특히 금상을 받은 안전조 14명은 111

일의 캠페인 기간 동안 단 1건의 사고, 민원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도 없이 마무리해 그 의미가 크다.

노충국 안전조 조장은 "조원들이 단합해 큰 성과를 이룬 것 같다"며 "차회 조원

들은 친절하고 안전한 라정시내버스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성 라정시내버스 상무이사는 "현장에서 수고 많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고 여러분 덕분에 광주에서 사고율이 가장 낮은 시내버스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광주 안전 시내버스 하면 라정시내버스가 될 수 있게 친절과 안전에 더욱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태호 기자



www.kjdaily.com

##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p><b>시내 지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지구 222-8171</li> <li>· 산수지구 224-4188</li> <li>· 학운지구 673-6836</li> <li>· 화정지구 372-9140</li> <li>· 금호지구 376-7153</li> <li>· 풍암지구 603-0311</li> <li>· 노대지구 674-3581</li> </ul>	<p><b>지방 지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포지사 061)270-8689</li> <li>· 동목포지사 061)278-0740</li> <li>· 남목포지사 061)245-3797</li> <li>· 신안지사 061)980-8300</li> <li>· 순천지사 061)746-1600</li> <li>· 여수지사 061)651-6433</li> <li>· 나주지사 061)335-0005</li> <li>· 광양지사 061)793-6800</li> <li>· 구례지사 061)782-4696</li> <li>· 담양지사 061)383-5566</li> <li>· 곡성지사 061)362-5746</li> <li>· 고흥지사 061)832-6290</li> <li>· 보성지사 061)852-6644</li> <li>· 화순지사 061)373-7795</li> <li>· 장흥지사 061)863-6800</li> <li>· 강진지사 061)432-8899</li> <li>· 해남지사 061)535-5849</li> <li>· 영암지사 061)473-7151</li> <li>· 오치지구 261-9461</li> <li>· 문흥지구 261-9462</li> <li>· 일곡지구 573-3200</li> <li>· 첨단지구 971-7374</li> <li>· 치명지구 371-9584</li> <li>· 수완지구 955-0451</li> <li>· 광신지구 944-0993</li> <li>· 무안지사 061)453-3645</li> <li>· 함평지사 061)322-0882</li> <li>· 영광지사 061)353-5133</li> <li>· 장성지사 061)394-3636</li> <li>· 완도지사 061)555-0134</li> <li>· 진도지사 061)542-4330</li> </ul>
---	---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